



### “봄내음 물씬~”

화창한 날씨속에 봄내음이 가득한 18일 울긋불긋 철쭉이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린 광주 동강대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최후의 혈투’

이용섭, “광주 발전 사명”... 호소문 발표  
강기정, 세결집... 윤 시장 지지세력 합류  
양향자, “새로운 탈바꿈” 바닥민심 잡기



이용섭 강기정 양향자

6·13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티켓을 향한 피밀리는 경선투표를 시작으로 예비후보 3명의 ‘최후의 혈투’가 본격 돌입했다.  
세 후보들은 민주당 경선이 곧 광주시장 당선 가능성이 큰 만큼 호소문 발표와 세 결집 등 막판 치열한 혈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민주당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실시된다. 권리당원 ARS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이다.  
3일간의 경선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23~24일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이날 강기정·양향자 후보가 이용섭 후보의 줄서기 논란 등을 이유로 중앙당 선관위에 참관인을 보내지 않아 논란도 있지만 윤명의 경선은 시작됐다.  
문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여부

에 따라 결선투표에서 승부가 갈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예비후보 측은 ‘대세론’을 강조하며 1차 경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강·양 후보 측은 이 후보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이력으로 10% 감산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결선투표로 승부를 걸고 가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려온 이 예비후보 측은 1차 투표에서 결판을 보는 게 최우선 목표다.  
이 후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호소문을 통해 “‘광주발전과 광주의 새로운 도약’으로 보답하고 싶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광주에서는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이 통할 수도 없고, 통해서도 안 된다”며 “시민들이 이용섭을 지켜 달라. 정책과 자질을 평가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과거 경선조직과 인력을 대거 흡수하며 막판 지지율 제고를 통해 승리한다는 전략이다.  
강 후보는 18~20일까지 경선기간 정책 필리버스터를 이어 간다. 필리버스터에는 단일화에 함께 한 민행배 전 생산구청장과 최영호 전 남구청장도 참여해 빛그린산단·말바우시장·중소기업·여성새일센터·노인복지관·광주공원·기사식당·지하철역 등을 찾을 계획이다.  
강 후보는 “윤 시장은 현직 단계장으로서 공직에 있는 만큼 지지선언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며 “하지만 그를 지지했던 당원과 시민들이 우리 캠프와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은 세 후보 중 가장 낮지만 ‘완전히 새로운 광주, 위대한 변화’를 강조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양 후보는 여성후보가 점 10%를 들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 예비후보의 10% 감산과 양 예비후보의 10% 가산이면 극적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후보는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의 기적을 만들었던 시민들이 ‘새로운 광주’ 기적을 만들어 달라”며 바닥민심을 다지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경선은 당원명부 유출의혹과 전두환 청와대 근무 등이 예비후보와 연관된 논란과 잡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판세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기철 기자

## 민주 전남지사 후보 오늘 ‘판가름’

김영록·장만채, ‘호소·입장문’ 내고 지지세 결집  
권리당원·일반여론조사 합산...막판까지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된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가 19일 판가름 난다.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 결선투표가 18일부터 이틀간 일정에 돌입했고, 김영록·장만채 예비후보는 마지막 호소문과 입장문을 내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결선투표에 즈음한 호소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잡은 전남의 ‘꿈’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전남 발전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의 완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정당당당하게 겨루는 감동적인 경선을 치루겠다”며 “끝까지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그러나 “민주당의 분산이자 뿌리인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도민 축복 속에 그 어느 곳보다 감동적으로 치러져야 하지만 상대후보의 흑색선전이 도를 넘었다”며 “이런 일방적인 비방은 자신은 물론 집권여당 경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다”고 장만채 후보를 겨냥했다.  
장 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김영록 후보의 ‘불법 ARS 음성전송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데 이어 수사를 의뢰



김영록 장만채

했고,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후보자격 박탈과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고 날을 세웠다.  
장 후보는 “한 정치인의 진면목은 위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큰 잘못을 했을 때 국민께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선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유권자와 전남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한 김영록 후보의 투명한 고백과 자진사퇴, 민주당 중앙당의 진상조사사안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투표는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일반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한다. 결과는 19일 오후 나을 전망이다./정근산 기자

## 청 “정상회담서 ‘정전→평화’ 협정”

남북정상 첫 약속부터 회담 주요일정 생중계

청와대는 18일 남북·북미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간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종전문제를 논의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는데 실제로 추진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외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는 언급을 확인한 것으로, 정전체제를 종식할 종전선언 문제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주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

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 그는 “직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은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의전·경호·보도’ 부문 2차 실무회담을 열고 양 정상회담의 약속순간 등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2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의전·경호·보도 부문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역사적 남북회담에서 양 정상간 첫 약속순간부터 회담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더 세밀한 계획수립을 위해 의전·경호·보도 부문의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최저임금  
해결사**

## 일자리아정자금 신청기업에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자금 지원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자리아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에게 2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용자에 드립니다.
- 일반 경영안정자금 용자(2.94%, 변동) 보다 낮은 2.5%(고정)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별지원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자리아정자금 수급 중소기업에 대해 5백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용자에 드립니다.
- 전용자금 지원조건은 연 3.0% 고정금리, 기업당 연 2억원 한도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 1588-7365)**

- 신용보증재단은 일자리아정자금 수급 사업주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특례보증해 드립니다.
- 보증비용을 확대(85→100%)하고, 보증료율을 0.8%로 우대합니다.
- \* 최근 5년간 평균 보증료율: 1.04%/1년/2.95%, (5년)3.3% 금리로 대졸

**기술보증기금의 금융지원 협약 보증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신기술사업자 중 일자리아정자금 수급 사업주에게 당해연도 보증료 전액을 면제해드립니다.
- 그 다음해부터는 고정 보증료율 0.7%(평균 보증료율 1.4%)를 적용하여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아정자금을 신청하세요.

일자리아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배제 지급
- 지급 방식** 직접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신청 방법** 온라인(4대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일자리아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읍·면·동사무소)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일자리아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